

# 전남 65세 이상 노인 비중 21.4% 전국 최고

## 고흥 32%·보성 30% 등 17개 지역 '초고령사회' 내일 노인의 날.. 전국 노인인구 600만명 첫 돌파

전남지역 65세 인구가 37만6297명으로 전체 인구(176만2178명)의 21.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올해 처음으로 600만명을 돌파했다.

또 올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6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이 계속되면 205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4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게 된다.

통계청은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관련 기존 통계를 수집·정리해 이런 내용의 고령자 통계를 발표했다.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613만7702명으로 전체 인구의 12.2%를 차지했다. 고령인구는 1970년 99만명대에서 2008년 500만명을 돌파했다. 2025년 1000만명을 넘어선 뒤 2050년 1799만1052명을 기록, 전체 인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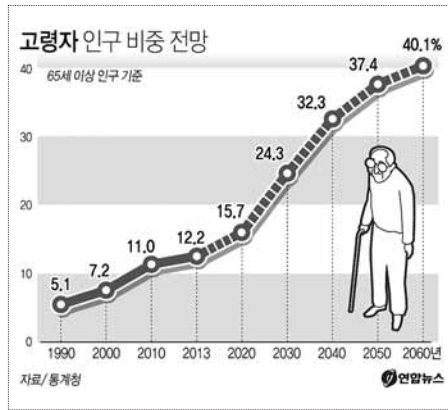
37.4%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남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 초고령 지역은 전남 22개 시·군 중 무려 17곳에 이른다. 30%를 넘긴 곳도 3곳이나 된다. 고흥이 32.6%로 가장 높고 보성(30.1%), 함평(30.1%), 곡성(29.9%), 신안(29.3%), 진도(28.9%), 장흥(28.2%) 등이 뒤를 이었다.

전남은 고령 인구가 많은 탓에 사망률도 높아 올해 사상 처음으로 신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 크로스(Dead Cross)가 발생했다.

전국적으로 고령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전남(21.4%), 전북·경북(17.5%), 강원(16.4%) 순이고, 낮은 지역은 울산(7.8%), 대전·경기·인천(9.7%) 순이었다.

또 지난해 고령자의 사망원인 1위는 암이었으며 건강보험의 고령자 진료비는 16조382



억원으로 전년보다 8.1% 증가했다. 이혼과 재혼 건수는 남녀 모두 급속히 늘었다. 지난해 총 이혼건수(11만4316건) 중 남자 고령자는 4836건으로 전체의 4.2%, 여자 고령자는 1955건으로 1.7%를 차지했다. 재혼 건수는 남자 2449건, 여자 912건으로 2005년에 비해 각각 1.6배, 2.2배씩 뛰었다.

고령자의 수가 늘다보니, 고령자 중 부모의 노후 생계를 '가족이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

는 비율은 36.6%로 2008년 48.1%에 비해 줄어든 반면,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비율은 22.3%로 2008년 16.5%에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0.7%로 전년보다 1.2%포인트 늘었다. 올해에도 고령층(55~79세) 10명 중 6명은 취업을 희망했으며 주된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54.8%)였다.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범죄 피해에 노출되는 경우도 늘었다. 2011년 전체 피해자 중 고령자가 범죄피해를 보는 비율은 9.1%로, 2002년(6.5%), 2005년(8.0%)보다 증가했다. 범죄 피해 유형별로는 재산범죄(43.5%)가 가장 많았다.

한편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노후준비와 건강관리를 잘하고 사회적 관계망도 촘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는 비율은 무(無)배우 고령자(23.8%)가 유(有)배우 고령자(50.9%)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 올 한반도 태풍 안전지대 되나

## 2009년 이후 4년만... 10월 내습 가능성 희박

올해 한반도가 2009년 이래 4년 만에 '태풍 안전지대'로 남을지 주목된다. 우리나라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해는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4년 이후 4차례에 불과했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발생한 태풍 21개 중 이달까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태풍은 '0'개다.

이달 하순부터는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태풍고기압이 점차 확장하면서 태풍이 내습할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올해는 태풍이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여름은 물론 추석을 전후할 수확철에도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났다.

일반적으로 8월 중순부터 9월 초가 되면 북태평양고기압 세력이 조금씩 약해져 일본 열도 부근까지 유입된다. 이때 태풍은 수축한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우리나라 쪽으로 진행한다.

그러나 강한 북태평양고기압 세력

이 중국 남부 지방부터 한반도까지 뒤덮으면서 태풍의 길목을 막고 있었던 7~8월은 물론이고 이달 들어 발생한 총 6개의 태풍 가운데 어느 하나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모두 중국 쪽으로 서진하거나 일본 동쪽으로 이동했다.

기상청은 이달 중순까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린 가운데 우리나라에 자리한 고기압이 태풍의 복상을 가로막았다고 설명했다.

이달 하순부터는 태풍의 길목이 되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본 동쪽으로 완전히 쳐지면서 태풍의 진로가 우리나라 쪽으로 향하기는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1904년부터 지난해까지 109년 동안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 335개 가운데 10월에 온 태풍은 8개에 불과했다.

통계적으로 보면 13.5년 만에 한 개 꼴이다. 1980년대 이후에는 1985년, 1994년, 1998년 세 번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 태양전지 세계 최고 기술 美 솔로파워 광주에 공장·연구소 짓는다

## 내일 평동산단서 착공식... 내년 4월 완공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인 박막형 전지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미국 태양전지 업체가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에 제조공장과 연구소를 짓는다.

박막형 태양전지는 국내 대기업에서 수년째 기술개발에 도전하고 있지만 성공한 업체가 단 한곳도 없는 차세대 신기술로, 광주시가 태양전지 산업을 대표하는 도시로 급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오는 2일 광주시 광산구 월전동 평동산단에 월전외국인투자지역에서 솔로파워코리아(주)의 공장 착공식을 갖는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지난 7월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해 솔로파워코리아와 CIGS(copper-indium-gallium-selenium) 박막형 태양전지 제조공장 및 연구소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서(LOC)를 체결했다.

미국 솔로파워와 씨티아이(주)의 합작법인인 솔로파워코리아는 2억5000만달러(한화 2750억원)를 투입해 내년 4월까지 광주 평동산단에 월전외국인투자지역에 제조공장을 완공할 예정이다.

생산라인이 본격 가동되면 생산인력 278명과

연구전담인력 30명 등 최소 308명이 근무하게 된다. 특히 태양광 관련 협력업체들이 인근에 들어설 경우 신규로 창출되는 일자리만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솔로파워사는 박막형 태양전지 선두기업으로 지난해 미국국립재생연구소로부터 세계 최고기록인 발전효율 13.4%를 인증받았으며, 최근에는 16.4% 모듈을 완성해 테스트 중이다.

25년 품질보증이 기본인 솔로파워사의 박막형 태양전지는 1세대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에 비해 두께는 100분의 1 수준이고, 무게는 1㎡당 2.4kg으로 5분의 1 정도 가벼운데다, 필름 형태로 쉽게 구부러지기 때문에 유연형 건물 지붕 등 어느곳에나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찢어지고 훼손돼도 90%의 전력생산이 가능하며, 1세대 제품보다 생산 원가가 저렴하고, 시공설치도 간단하다는 점에서 값싼 중국산에 밀리고 있는 국내외 태양전지 시장을 빠르게 점령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세계 최고의 태양전지 기술을 갖춘 업체가 광주에 공장 연구소를 짓게 된 것을 환영하며, 솔로파워코리아의 투자 성공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 전남도 비정규직 노동센터 개소식

전남도 비정규직 노동센터 개소식이 지난 30일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렸다. 배운태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강성희 전남도의원, 오주승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 최산순 한국노총 사무국장 등 참석자들이 현관을 제막하고 있다. 이 센터는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차별시정,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게 된다. <전남도 제공>

## 광주지하철, 고객만족도 1위

광주도시철도공사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실시한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지하철 운영기관 중 1위의 성적을 받았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부산교통공사 등 7개 도시철도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전체 평균 73점

보다 높은 80점을 기록, 전국 지하철 중 고객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안행부의 지난 7월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호준 사장은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위해 시민의 발인 광주 지하철의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앞으로도 1위의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고객만족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 신품종 벼 '전남1호' 내년 농가 보급

## 도 육종재배 결실... 수확량·내성·밥맛 우수

전남도가 개발한 신품종 벼 '전남1호'가 내년부터 농가에 보급될 전망이다. 올해 이 품종을 실증재배 결과 수확량, 병해충 내성, 밥맛 등에서 매우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8년부터 육종(育種)에 들어간 가칭 '전남1호'는 고흥과 장흥, 신안, 나주 등 4곳(4ha)에서 실증재배한 결과 10a당 수량은 554kg으로 기존 조생종(조평벼, 윤광벼)과 비슷하거나 10kg가량 많았다.

그동안 벼 품종 개발은 농촌진흥청이 주도, 수삼종을 신규 육종했지만 전남도가 자체 육종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밥맛을 결정하는 단백질 함량은 5.9%로 기준치(6.5% 이하)보다 낮았으며 완전미(完全米) 비율도 79.6%에 달했다.

성장일수가 적은 조생종의 완전미 비율이 보통 65% 전후인 점을 감안하면 15%포인트 가량 높은 셈이다.

병해충에도 강하고 특히 이삭상태에서 발아가 잘 안 돼 경우 수확시기 강우(降雨)에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신품종은 전남도농업기술원 쌀 연구소가 자체 육종에 들어간 것으로 보통 12~15년 걸리는 기간을 짧가르며 벼양 방식을 통해 5년간가량 단축했다.

일본 품종인 '고시히카리'와 국내 중만생종인 '운누리'를 교배해 새 품종을 얻었다.

전남도는 3년간의 실증재배가 끝나는 내년에는 국립종자원에 품종 등록을 한 뒤 본격적인 농가 보급에 나선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 북경당 한의원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비만클리닉** 한의원 박사 상준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KT ● 중앙초교 ● 금남로 ● 개림동 ● 동부소방서 ● 구.한미쇼핑 ● 대한생명 ● 주.주요병원 ● 고객 주차장 ● 북경당 한의원

진료문의 062)227-7575 진료시간  
평 일 : 오전9시~오전7시  
토요일 : 오전9시~오전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전로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880130-금-269호

## 사|원|모|집

사계절 푸르른 양간디, 친환경 나비의 고장 합평다이내스티CC에서 함께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부문**  
- 웨이츄레터(신입 및 주임급) 0명
- 자격요건**  
- 고졸이상 학력 취득자  
- 경력자 우대
- 급 여**  
- 연봉제 1,900만원이상(퇴직금 별도)  
- 경력자 면접 후 결정(이력서 우측상단에 희망연봉 기재)
- 복지후생**  
4대보험 가입, 숙식제공, 각종 수당 지급, 경조사지원, 우수사원포상, 단체상해보험가입, 교통비 지급 등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형방법**  
- 우편 및 이메일, 방문 접수  
- 접수기간 : 총원사까지(총원서 조기마감)  
- 서류접수 후 면접일차 개별발보
- 접수처**  
- 주 소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1-6  
- 담 당 : 경영지원팀 오승태 부팀장  
- 전 화 : 061-320-7717  
- 팩 스 : 061-320-7710  
- 이메일 : seungtae01@naver.com

임팩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최대 ~80%  
금리는 낮게 ▼ 최저 4.3%~

**광주 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 | 금호지점 | 풍암지점

##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인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클리코엔(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섭취입니다 /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상승 억제!!**

- 식후혈당상승억제에도움을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주)유인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d+m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 1899-3975 H,P 010-3598-7080